

### 공동체 기도

1. 순마다 생명력이 있어,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2. 공동체 환우들을 위하여
3. 교육관 건축이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4. 다음세대(교육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5. 뉴저지초대교회 선교사역을 위하여
6. 제자반, 일대일 양육, 일터사역 등 장년 교육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 2월 교회 일정

2월 4일(주일): 성찬주일  
2월 2일-23일: 중보기도 학교 (4주간)  
2월 10일(토): BLESSED 교육 컨퍼런스  
2월 11일(주일): 2017 결산 제작회  
2월 14일(수): 사순절 시작  
2월 25일(주일): 선교엑스포, 3월 순장교육

## Putting God First

하나님 우선의 삶

##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시편 77:10-20

### 알리는 말씀

1. 2018년 교회 표어는 'Putting God First'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2. 순예배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곡 찬양/대표기도/성경봉독/순나눔
3. 공동체 암송&찬양 스케줄: 2/2-15 공동체, 2/9-16공동체, 2/16-17 공동체, 2/23-18공동체, 3/2-19 공동체
4. 3월부터 전교인 대심방이 시작됩니다. 순장을 통해서 심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가족 순예배 교육은 순장교육 전에 진행됩니다. (매 달 마지막 주일 2:30pm, 유년부실)
6. 순모임 후에 온라인을 통해 순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두 번째 모임의 순교재는 매달 둘째 주일에 로비에 배치됩니다.
8. 디아스포라 사역: 순원들 중에 교회를 떠나 타 주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담당 목회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시편 77:10-20)

###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새찬송가 429)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경배와 찬양 371)

**Focus**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주목할 때, 고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을 여세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시편 77:10-20 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시편 77 편은 개인 혹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반부(1~9 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심적 고통과 갈등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해 밤새 괴로워합니다. 그는 영혼의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암울한 현실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후반부(10~20 절)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기대합니다.

###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 시편 기자는 현실에 대한 낙담과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나요? (10~12 절)

**1-2. 적용과 나눔** | 잠을 못 잘 만큼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나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작용할까요?

**2-1. 관찰과 묵상** | 고통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건에 주목하나요? (15~20 절)

**2-2. 적용과 나눔** |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과거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 > 말씀 다지기

절망의 상황이 오래가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러한 때 시편 기자는 의지적으로 과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되씹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강한 오른팔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셨습니다. 기이한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목하고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는 것은 오늘 낙망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깨달을 때 성도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뀝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고난의 주권자도, 해결의 주권자도 주님이십니다. 앞이 캄캄해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찬송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 “곧 여호와와 그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 77:11)